

# 기후위기 극복, 입법과 기후과학의 동행

- 기상청,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9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2일간, 국회에서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주관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입법·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이번 박람회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기술로 여는 기후예측의 미래!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을 감시하는 지구의 눈 '지구대기감시' △기후변화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폭염, 폭우 등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상관측 차량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국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상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후과학국	책임자	과 장	원재광 (042-481-7381)
	기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화수 (042-481-7376)